

# 태권도로 세계평화 꿈꾸다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21~26일 무주 일원서  
23일 품새경연에 北·우크라 선수들도 참석  
"전세계 태권도인들의 축제로 품격 더 높여야"

제15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가 21~26일 6일 간 무주군에서 열린다. 이는 전 세계 태권도인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국내 유일의 태권도 생활체육 축제로, 자원봉사 교육 및 발대식을 시작으로 태권도 세미나, 태권도경연대회, 태권도시범경연대회, 도전!태권웰링저, 문화체험 및 문화탐방 등 프로그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고훈수 조직위원장 직무대행은 "제15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는 코로나19를 태권도 정신으로 극복하고, 특히 태권도를 통한 세계평화를 이루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오는 23일 진행되는 태권도품새 경연대회에 북한 선수와 우크라이나 선수들도 참석하기로 했다.

2007년 이 대회가 시행된 이래 북한 선수의 출전은 처음이다. 평화와 자유를 위해 미국으로 망명길에 오른 K군은 "태권도 지도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에서 시작하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3명의 우크라이나 선수들의 출전은 태권도인들로 하여금 태권도를 통한 세계평화의 외침으로 해석되고 있다. 북한과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18개국 약 2270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치러지는 첫 대면행사인 만큼 그 의미도 남다르다. 이경원 사무총장은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는 지난 2007년 시작해 태권도를 세계 곳곳에 확산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한 바,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축제로 그 품격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장은성기자·무주=전문선기자



전북 테니스 유망주 조세혁이 최근 영국 워블던 테니스대회 14세부 남자 단식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사진은 정강선 전북체육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 전북 테니스 유망주, 워블던서 우승

# 조세혁, 월드스타로 '우뚛'

14세부 남자 단식 1위  
월드주니어대회 본선  
'세계 재패' 도전

전북 테니스 유망주 조세혁(14)이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월드스타로 우뚛 섰다. 11일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최근 영국 워블던 테니스대회 14세부 남자 단식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워블던 대회는 세계 4대 테니스 메이저 대회 중 하나로 역사가 깊고 권위가 있는 대회다. 세계 각국 16명만이 출전 자격을 부여받은 대회인만큼 경쟁한 선수들과 맞붙게 된 조세혁은 당초 4강을 목표로 대회에 나섰다. 하지만 조세혁은 워블던 기량을 뽐내며 승승장구했고, 결승에서 만난 미국의 켈렐 오브리 엘머저 2대 0으로 물리치며 초대 우승자로 이름을 새기게 됐다. 현재 조세혁은 아시아 14세 이하 남자 랭킹 1

위이자 한국 U-14세 국가대표로 앞으로의 성장가능성도 무한한 선수다. 조성규 전무이사는 "세혁이가 그토록 꿈꿨던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너무 기쁘다"며 "더욱 훌륭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기쁨을 전했다. 정강선 회장은 "워블던 대회 우승이라는 쾌거를 얻은 것을 다시한번 축하한다"며 "전북체육회는 도내 우수한 학생선수들이 훌륭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테니스계에 한 획을 그은 조세혁은 프랑스와 독일 벨기에 등 유럽 각지를 돌며 대회와 훈련 일정을 소화한다. 또한 2022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본선이 펼쳐지는 체코로 이동해 이 대회에서도 세계 재패에 도전한다. 앞서 남자 14세부 테니스 국가대표팀은 월드주니어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예선에서 조세혁의 활약 속 일본을 물리치고 최정상에 오르기도 했다. /장은성 기자

## 또 하나의 즐거움, 태권도원서 맛봐요

태권도 복합체험시설 '플레이원' 정식 오픈 운영... 오늘부터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영환, 이하 재단)이 운영하는 태권도성지인 태권도원 내 태권도 복합체험시설인 플레이원(Playwon)이 12일부터 정식 개장으로 고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플레이원은 국내 유일의 태권도 동작을 기반으로 조성된 놀이시설로 16개의 태권도 동작을 응용한 초급, 중급, 고급코스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동시에 2명이 경쟁하며 스피드를 겨룰 수 있도록 센서 장비를 통해 본인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 방문객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정식 개장을 기념해 12일~22일 이용요금 50%이 이벤트를 진행하며 오는 23일부터 정상 요금으로 운영된다. 정상 요금은 18세 이하 청소년은 4,000원, 성인은 5,000원, 2인 가족권은 8,000원으로 당일 이용횟수에 따라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단체는 20인 이상 별도요금으로 운영된다. 이어 방학을 맞아 8월말까지는 매일 운영(월요일 휴관일 제외)하며 9월부터는 주말 방문객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식 오픈에 앞서 플레이원은 지난 5월 정식 오픈에 앞서 내 부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시범운영, 8월 방문객을 대상으로 주말 2차 시범운영을 진행해 안전과 고객편의를 보완한 바 있다. 시범운영에 참가한 경남 김도현(36세)씨는 "아들이 태권도를 너무 좋아해 태권도원을 방문했는데 플레이원이 운영되고 있어 더 좋았다"며 "아빠와 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다는게



최고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또 태권도원내 태권도원을 방문한 이모(42·서울)씨는 "플레이원까지 운영되면서 하루로는 태권도원을 즐기기가 너무 모자랄 지경이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멀리서 온 보람을 느낀다"고 했으며, 무주 지성태권도 김모(34) 관장은 "태권도장에서 배운 동작을 응용할 수 있는 놀이 시설이라 올 여름 도장수련생에게 필수코스가 될 것 같다"며 플레이원 운영에 큰 만족감을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우석대 총장기 태권도대회 내달 11일부터 6일간 '열전'

겨루기·격파 등 총 1800여명 출전

우석대학교 총장기 전국 태권도대회가 8월 11일부터 16일까지 전주캠퍼스 체육관에서 진행된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이 대회는 겨루기와 품새, 격파 등 총 3개 부문으로 나눠 펼쳐진다. 개회식은 8월 11일 오전 11시에 열리며, 우석대 태권도시범단이 민초들의 삶을 그린 태권소리극 태권유랑단 녹두를 선보일 계획이다. 11일부터 3일 간 진행되는 겨루기 부문에는 619명의 선수가 출전하며, 체급별 토너먼트 방식으로 용호상박의 경기를 펼칠 예정이다. 14일 열리는 격파 부문은 중등부와 고등부에서 200여 명이 출전해 체급 도약 격파와 수직축 회전 격파, 수평축 회전 격파 등의 고난도 기술을 선보인다. 15일부터 2일간 열리는 품새 부문은 개인전(남녀 각 16개부과 복식전(혼성 5개부), 단체전(남녀 각 5개부)에서 1000여 명이 출전한다. 남천현 총장은 "지난 2003년 대한태권도연회가 공인한 전국 규모의 대회로 첫발을 내디딘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 규모와 경기 수준이 향상되면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대회로 발돋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대학교는 태권도의 성장과 발전은 물론 주변 확대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해주세요.

울창한 숲과 시원한 계곡이 있는  
진안에 오면 여행도 영화가 됩니다.

진안고원의 여름여가가능길

진안고원 여행

운일암반일암, 갈거계곡, 부귀편백숲, 연인의 길

NAVER | 진안군 | D.J.M | 마이산

여행 시 코로나 예방수칙을 꼭 지켜주세요!